

지역 소식통

김제시, 노인일자리 3월 활동비 선지급 결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멈춰버린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선지급 후 정산 방안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경제적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를 선지급해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선지급 대상자는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4,387여명으로 월 10회 30시간 활동 기준으로 1인 27만원씩 지급된다.

코로나19 사태 종식후 노인일자리사업이 재개되면 활동기간을 월 40시간으로 연장해 선지급된 활동비를 정산할 계획이다. 선지급 희망자는 참여하는 기관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오는 4월 3일 지급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유니캡-신용보증기금 15억 투자협약 체결

캠핑카의 장인기업인 (주) 유니캡(대표 오완근)은 지난 26일 신용보증기금과 서울 신용보증기금 투자협약센터에서 1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주) 유니캡의 발전가능성, 관련 업계의 성장 잠재력, 고객 수요 등의 종합적인 고려 및 면밀한 검증 등을 통해 15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다.

(주)유니캡은 2018년 백구특장차단지에 입주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 스타렉스 기반 세미캠핑카 업체 중 선두 주자로 우뚝서며 2019년 기준 130억 매출과 34%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또한 지속적인 성능평가, 지식재산권 확보 융합 기술 개발을 통하여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김제 제2공장 증설을 시작으로 향후 카니발, 레이, 르노마스터 등 차종을 다양화해 생산 인프라 및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폐수종말처리장 개선 추진

완주 삼례폐수종말처리장, 초·중학생 체험·자연학습장으로 탈바꿈 올해 말까지 견학코스·꽃길 조성·기존 홍보관 리모델링 마무리

완주 삼례폐수종말처리장이 자연학습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30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삼례폐수종말처리장을 체험 및 자연학습장으로 적극 개방하기 위한 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삼례 폐수종말처리장(삼례읍 후상제방길 62)은 총면적 3만2535㎡ 규모에 달한다.

새만금 및 만경강유역의 환경사고 예방 및 수질 보전을 위해 완주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유입 전 과정을 수질자동측정장(TMS)을 통해 24시간 확인하고, 1일 평균 1만1459톤의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다.

군은 삼례 폐수종말처리장을 견학시설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총 2억원을 투입해 견학코스(400m), 꽃길을 조성하고 기존 홍보관을 리모델링한다.

또한 폐수처리장 현황판과 생물반응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삼례폐수종말처리장을 체험 및 자연학습장으로 적극 개방하기 위한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조 및 최종 침전조 전방대를 설치한다. 홍보영상도 제작해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군은 시설개선을 올해 말 마무리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폐수처리과정에 대한 자연학습장으로 적극 개방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학생에게 견학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2단계 사업으로 삼례폐수종말처리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인근 금와생태습지공원, 삼례문화예술촌, 만경강 비비정을 연계해 관람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조상땅 찾기·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큰 호응

김제시가 추진중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됐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되고 이용수수료는 없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2002년부터 시행된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해 985명의 신청을 받아 20,259필지, 21,482천㎡의 토지가 확인되었다.

올 3월 현재 신청인원 236명에 938필지, 970천㎡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상속자 등에게 상속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상속권자가 읍면동에 사망신고서 조상땅 찾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권자가 전국 시·군·구 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포함해 금융거래, 자동차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어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 우수 브랜드쌀 평가, 김제시 '3년 연속' 1위 선정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실시한 2020년 전북 우수 브랜드쌀 현장평가 결과 공덕농협이 '상상에찬골드'가 1위, 이택영농조합법인의 '방아찢는날골드'가 3위에 선정되어 2개 브랜드가 3년 연속 선정됨과 동시에 3년 연속 1위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우수 브랜드쌀 평가는 전북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브랜드 인지도 확보를 위해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

앞서 김제시는 4개 브랜드를 지난 2월에 추천하였고, 전라북도에서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품위평가, 잔류농약검사, 전문 패널 식미평가 등 전문기관별 평가를 실시하고 시군별 현장평가를 통해 계약재배 농가 및 가공관, 고품질쌀 시설, 품질관리 및 위생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과 서류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평가순위 1~3위는

전북 우수 브랜드 경쟁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홍보비를 지원받게 된다.

송명호 떡거리유통과장은 "전북 우수 브랜드쌀에 김제시에서 추천한 2개 브랜드가 3년 연속 선정되고, 3년 연속 1위를 놓치지 않은 만큼 김제쌀의 품질에 대한 인정을 받았으니, 김제 브랜드 쌀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함으로써 고품질 쌀 생산 유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백구면에 위치한 지역 내 폐기물 수집 및 운송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참조은재활용협동조합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위한 성금을 기탁했다.

소외된 아동위한 나눔 실천

김제 참조은재활용협동조합, 김제시에 후원금 1백만원 기탁

김제시 백구면에 소재하고 있는 참조은재활용협동조합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후원금 1백만원을 30일 김제시에 기탁했다.

참조은재활용협동조합은 김제시 백구면에 위치하여 김제 지역 내 폐기물 수집 및 운송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으로 수시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및 나눔사업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에도 김제시 담장하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해 나가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참조은재활용협동조합 안진광 이사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활발한 나눔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준배 김제시장은 "요즘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를 실천해주신 참조은재활용협동조합에 감사드린다"며 "소외된 아동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김제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김제시 요촌동에 위치한 코비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전달할 계획이며 코비그룹홈은 원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가정체제, 방임,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아동 7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병원 면회 제한 등 현장 점검 강화

완주군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병원과 의원 등의 면회 제한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3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영상 대책회의에 참석한 후 곧바로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병·의원 관리 점검과 해외 입국자 검사 강화 방안, 대형공사장 등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경제 활성화 방안 등 총괄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병·의원 입원환자의 원칙적 면회 제한과 면회 희망 시 영상통화 허용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동참을 요청하는 등 현장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또 "해외 입국자 검사강화가 중대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관리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군은 이에 따라 지역의 병·의원 입원환자 면회객 제한을 포함한 면회 관련 절차를 현장에서 적극 홍보

보고 입원환자 자체 점검 결과를 매일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의료법 개정과 예방수칙·대응요령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면역 취약계층의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요양병원에선 근무 예정인 신규 간병인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여 결과 확인 후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완주군에는 현재 병·의원 100개소에 1,300여명 이상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문자는 명단 작성과 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완주군은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차원에서 입국자 자진신고 재산문자 안내 등을 통해 검체 검사와 이송지원 등 관리·지원 강화에도 적극 나서는 방침이다.

지역 내 대형 공사장 외국인 근로자들과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관리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현장중 직접 방문해 사업장별 관리체계 구축을 재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